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

3월30일 화요일	보 도 자 료	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, Best Jeonnam

실국	농업정책과	과장	손명도	팀장	김송원	☎	286-6230

전남도 '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' 도내 10개소 선정

-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촌 복지 서비스 등 활성화 기대 -

전라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해 '농촌공동체 우수사업'을 지원하고 있다.

본 사업은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업법인, 협동조합,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등록 된 단체이다.

전라남도는 30일 2021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
올해 사업에 선정된 농촌공동체회사는 ▲ 담양군 꿈에그린농장 ▲ 구례군 그리올푸드 ▲ 보성군 보성싱싱농원 ▲ 강진군 네이처리스, 강진해찬여주, 고마미지, 탐진들 ▲ 영광군 불갑산권역 ▲ 완도군 아들래 ▲ 진도군 새섬맛두레, 진도시골김치 10개소이다.

이들 회사에는 개소 당 50백만 원 씩 총 5억 원이 지원된다.

사업비를 지원받은 회사는 브랜드와 제품개발, 교육과 컨설팅, 홍보, 농촌복지서비스 등을 추진하게 된다.

손명도 도 농업정책과장은 "이번 선정을 계기로 농촌공동체회사의 생산제품 다양화와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,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중점 추진중이며 지금까지 총 7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.

지난해에도 7개 시군에 10개소를 선정하여 취약계층 물품제공, 주먹밥 전달, 각종 고용지원, 독거노인 집청소와 반찬배달 등 총 2,600여 명이 직간접 수혜를 받았다.